

40℃ 불덩이 서울

영등포, 서울 올해 관측 첫 40도

서울 영등포구에서 6일 한낮 기온이 한때 40도까지 치솟았다. 7일이면 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이지만 서울 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돼 이틀 연속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남 양산에서 기상 관측 사상 최고인 42.5도가 기록된 데 이어 전국 곳곳에서 '40도 더위'가 나타나면서 초(超)폭염이 일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57분 영등포구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서 40.0도가 관측됐다. 서울에서 재해 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AWS 기준으로 40도를 넘는 것은 2018년 8월 서울 강북구에서 기록된 41.8도 이후 8년 만이다. 다만 영등포구 AWS는 건물 옥상에 설치돼 실제 기온보다 과대 측정될 수 있어 기상청의 통계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 비공식 수치다.

용산구(39.9도), 구로구(38.9도), 금천구(38.8도) 등도 39도 안팎으로 치솟는 등 도심 전역이 펄펄 끓었다. 기상청 공식 관측소 기준으로도 서울은 37.9도까지 올라 올여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가 발효된 지역은 36곳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서울 전역에는 나흘 연속 중대경보가 이어졌으며 춘천, 횡성, 홍성 등 강원 지역까지 처음 발효됐다.

6일 서울
주요 지역의
최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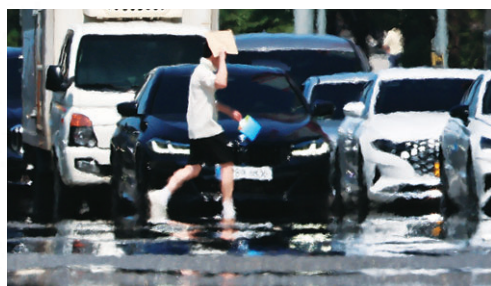
영등포 40.0도
용산 39.9도
구로 38.9도
금천 38.8도

6일 오후 4시
기준, 공식
관측소가 아니라
재해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자동
기상관측장비
(AWS)'에서 측정.
자료: 기상청

용산 39.9도-구로 38.9도까지 올라
오늘 입추에도 최고 39도 예보
李 "사실상 국가재난, 최대치 대응"

프로야구 금토일 3연전 추가 취소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명 피해와 가축, 농산물 등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3일 이후 사흘 연속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환승센터 앞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양희성 기자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2026 서울 썸머비치' 수영장에서 관리요원이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송은석 기자

200명을 넘어섰다. 5일 현재 누적 온열질환자는 2665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23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이미 지난해 기록을 웃돌고 있다. 양식장, 축산농가에서 집단 폐사가 이어지고 농작물이 타들어 가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히트플레이션(고온+물가 상승)'이 불가 전 반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폭염으로 5. 6일 전 경기를 중단했던 프로야구는 이번 주말 3연전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7~9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15경기를 취소한다"며 "주말 동안 세 부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해 11일부터 리그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극한 폭염은 입추인 7일 절정에 달했다가 주말 들어 구름이 끼면서 주춤하겠지만, 여전히 다음 주 한낮 기온은 예년보다 높아 땀병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폭염·가뭄 대책 상황 점검 회의와 수석보좌관 회의를 잇달아 주재하고 "지금쯤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와 같은 취약시설 거주 주민이나 공사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능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은 chan2@donga.com·강홍구·신규진 기자
▶2·3·20면에 관련기사

김정관 “가장 큰 경쟁 상대는 中 첨단 산업 주52시간제 손질해야”

관훈토론서 ‘근로시간 유연화’ 강조
“일하려는 의욕·의지 꺾어서는 안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법으로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업과 산업, 나라의 경쟁력은 다른 기업과 산업, 나라와 비교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6면에 계속

“호르무즈 ‘60일간 재개방’ 합의 초안 마무리”

해협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
빠져나갈 땐 오만 영해쪽 항로 이용
“이란 5~7% 수수료 요구” 변수로

이란과 오만이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무리했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다만, 수수료 부과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이란 내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돼 합의가 막판에 불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WSJ에 따르면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 항로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60일짜리 한시 합의안 초안을 최근 마무리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선박을 통제하고, 해협을 빠져나가는 선박은 오만 영해 쪽 항로를 이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협상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들이 전했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항로의 지리

적 좌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고려 사항과 합의점을 담은 양국 간 공동성명이 현재 검토 및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확인했다.

WSJ는 “이번 합의에선 해협에서 통행료나 서비스 요금 부과가 명시적으로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선박 통행을 관리·조율할 수 있도록 하되, 경비·수색·구조활동 비용 명목의 ‘자발적 기부금’을 제외하곤 어떤 요금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했다는 것.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이란 고위 관계자 등을 인용해 이란이 해협 통과 선박에 화물 가격의 5~7%를 수수료로 받으려고 하며, 미국은 이에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CNN은 이란과 오만이 7일까지 합의에 도달할 확률이 “50 대 50”이라고 전망했다.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실제 해협 개방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란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강경파와 실세인 이란 혁명수비대가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아동학대 가정’ 상담·치료·교육 거부 5년간 1102건

10면

아동학대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가정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등 ‘사례 관리’를 보호자가 거부하거나 중단시킨 사례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0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를 아동과 강제로 분리하는 최후 조치인 피해 아동 보호명령 접수도 5년 새 반 토막 났다. 그사이 재학대율은

2020년 11.9%에서 2024년 15.9%로 올랐다. 보호자가 문을 닫아걸면 국가 개입이 사실상 멈추는 구조여서 아동이 학대 가정에 그대로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B섹션 ‘동아경제’ 이번호 쉽니다 경제 16면

날개가 없어, 소리 없이 조용하다...찬바람은 기본,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기능까지

가성비 100%의 최신형!
기화식 냉각필터 + 터보 블로워팬
우리가족 생활을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날개없는 냉풍기

기화식 냉각필터	터보 블로워팬	고출력&저소음 모터
상하+좌우 회전	3가지 바람모드	4단계 바람세기
급냉풍/리모컨	480분 타이머	원터치 조작버튼

페르소나 날개없는 냉풍기



저소음의 강력한 파워! 터보 블로워팬의 시원함



날개가 없어 다칠 염려 없는 안전한



1,000세트 한정판매

〈1일 8시간 기준 / 1개월 전기요금 4,300원〉

출시기념 10만원 파격할인판매

■ 페르소나 날개없는 냉풍기

소비자가격 398,000원 → 298,000원

※제품구성 : 냉풍기 본체, 리모컨, 냉매팩 2개, 사용설명서

- | | |
|------------------------|---------------------|
| ●제 품 명 : 페르소나 날개없는 냉풍기 | ●물통용량 : 4 L |
| ●제품크기 : 85 × 18 × 32cm | ●정격전압 : 220V / 60Hz |
| ●색 상 : 화이트 | ●소비전력 : 110W |
| | ●무 게 : 7kg |

■ 자연기화식 냉각필터 방식

신개념 폭포수 벌집기화 냉각필터는 자연스럽게 흘러 내리는 물줄기로 공기를 깨끗하게 여과시키고 바람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수 제작된 폭포수 자연 기화 냉각필터를 통해 체감온도를 최대 5~7℃ 정도 저하시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 소리없이 강력한 터보 블로워팬

과열방지 저소음의 강력 블로워팬 장착으로 바람의 효율을 30% 향상시켜, 상쾌하고 강력한 냉풍을 직사바람 10m까지 출력합니다.

■ 저소음 슬림모드 / 고출력 모터

저소음 설계로 수면모드시 방해없이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1800-4700 각종 신용카드 5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www.mitzvah.co.kr (주)미츠바코리아 전국 어디든지 무료배송